



<24> 함평 한우사육 신영철씨 부부

‘안전한 고급육’으로 수입쇠고기 파고 넘는다



젊은 축산농 신영철씨는 ‘안전하고 맛있는’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 쇠고기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무항생제 인증에 이어 HACCP 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함평군 화교면 월봉리 세칭(世淸)농장에 차량이 막 들어서자 소독약이 자동으로 분사된다. 소 출하차량이나 퇴비를 실은 차량은 아예 오염 요소가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문으로 다니게 돼있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주 신영철(40)씨와 부인 누엔티미원(21)씨는 요즘 일명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 요구기준에 맞게 출입문에 차량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 축산물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HACCP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HACCP 인증받기 위해 만반의 준비=“기존 축산물 생산이 양 위주에서 고급육으로 변화했다면 앞으로는 ‘안전하면서 맛있는’ 고급질 고급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평군 대표 한우 브랜드인 ‘함평천지’를 생산하는 신씨는 한우사육에 관한 나름의 신념이 확고하다. 인문계고인 학다리고등학교를 1년 다니다가 ‘시골 경취와 소가 좋아’ 함평농고 축



농장입구에 차량소독조가 설치돼 오염요소의 유입을 차단한다.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는 작업과정중 위해요인의 발생여부를 사전에 분석해 중점관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선진 위생관리 제도이다.

작년 무항생제 이어 HACCP 인증 신청 490여평 규모 축사서 51두 친환경 사육 150축산농 ‘명품 브랜드 한우’ 생산 심혈

산과로 전향한 다소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연암대 축산과에 진학해 졸업 후 1995년 함평 축협에 입사, 인공 수정사로 일하는 등 순탄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직장생활 9년만인 2004년 1월, 신씨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승부수를 던졌다. 축협을 퇴직하고 한우사육을 시작한 것이다. 직장생활 중에서도 부업으로 한우 2~5마리를 키웠지만 IMF 파동과 불안한 소값으로 빚만 잔 채 쓴맛을 봐야했다. 퇴직전 키우던 한우를 팔아 농장부지를 사고 이듬해 농어민 후계자 자금과 축협 경영자금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농장경영에 나섰다. 꽃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농장을 하고 싶고 맑고 깨끗한 쇠고기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농장이름도 세칭(世淸)으로 정했다.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 쇠고기와 승부=농장부지는 1천700여평, 축사는 490여평 규모로 시작 당시 10두에서 현재 51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규모로는 100마리도 가능하지만 친

환경 사육을 하기 위해 밀식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료대가 경경되고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소값마저 좋지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가 들어온 이후 신씨를 비롯해 한우사육 농가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신씨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안좋은데다가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실시로 한우 자급율이 올라갔다”며 “무항생제와 HACCP 인증 등을 통해 안전한 고급육을 생산하면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평군과 함평축협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된데 힘입어 고품질의 ‘함평천지 한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우량 암소핵군(우량필소) 육성 ▲명품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홍보·마케팅 강화 ▲이벤트 및 관광개발 등 5개 사업 분야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6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4년 ‘전남도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자’로 지정돼 함평축협과 함께 3년간 7억5천만원을 투입해 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 섬유질사료(TMR) 공급 및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량 종모우(種母牛)의 정액을 1억6천500만원을 들여 지역 수정사와 자가 수정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함평 한우농가 3통(通)에 심혈=현재 150농가가 ‘함평천지 한우고급육회’를 조직해 혈통과 사양관리, 사료 등 3통(通)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씨는 농업 안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HACCP교육을 비롯해 함평축협의 컨설팅, 외부 강사 초빙교육에도 열중하고 있다.

신씨 역시 ‘함평천지 한우’ 프로그램과 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게 사육하고 있다. 쇠귀에는 12자리로 된 이력제 숫자가 일일이 달려있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발효 볶짚과 섬유질사료(TMR)가 한우의 주 먹이다. 거세 숫소가 생후 30개월에 몸무게가 680~750kg에 달할때 비로소 ‘함평천지 한우’라는 단일 브랜드로 출하하게 된다.

신씨의 최종적인 꿈은 ‘아름다운 농장’이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끔 축사주변에 나무와 꽃나무를 심고 한우들이 건강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연방목하는 ‘유기축산’을 하는게 신씨의 오랜 바람이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단독주택 시공비 50% 절감 **단독주택 시공비 50~70% 절감** **명부 무상지원** **명부보조금 100%지원**

063-328-3070 / 063-355-4437

061-705-7131 / 061-438-2377

장수바다장어

100% 자연산

063-393-7110